

2016년 5월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실버정책 개선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 연수기간 : 2016.4.24 ~ 5.2(7박 9일)
- 방 문 국 : 캐나다, 미국
- 연 수 단 : 12명(의원 7명, 공무원 5명)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

차 례

I. 연수의 개요	3
1. 연수국 및 연수의 목적	3
2. 연수기간 및 연수대상자	3
3. 연수의 배경	4
4. 연수의 세부내용	4
5. 주요일정	5
II. 시찰내용 및 시사점	6
1. 밴쿠버 올림픽 개요	6
2. 밴쿠버 올림픽시설	8
1) Rogers Arena	8
2) Pacific Coliseum	11
3) Whisler Olympic Park	14
4) Cypress Mountain	20
5) 밴쿠버 올림픽 시사점	21
3. 캐나다 복지제도	23
4. 노인복지시설	24
1) 밴쿠버 요양시설(Amenida)	24
2) 밴쿠버 시니어타운	27
3) 미국 노인복지제도	29
4) 시애틀 노인공동생활 거주시설(Merrill Gardens)	30
5) 노인복지시설 시사점	32

5.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	
1) 개스타운	33
2) 부차드 가든	35
6. 도시기반시설	
1) 밴쿠버 소각장	36
2) 밴쿠버 전통시장	42
3) 시애틀 전통시장	44
4) BC주 의사당	46
Ⅲ. 맺음말	50

I**연수의 개요****1. 연수국 및 연수의 목적**

- 연수국 : 캐나다, 미국
- 연수의 목적
 - 동계올림픽 개최지의 견학으로 다가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도모하고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홍보 및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며
 -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인구 노령화에 따른 선진 복지시설과 제도를 섭렵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2. 연수기간 및 연수대상

- 연수기간 : 2016.04.24(일) ~ 05.02(월) / 7박 9일
- 연수대상자

번호	구분	이름	비고	번호	구분	이름	비고
1	의원	조영돈	위원장	8	공무원	임용수	의회사무국장
2	의원	허병관	부위원장	9	공무원	김난순	전문위원
3	의원	이재안		10	공무원	이운선	주무관
4	의원	유현민		11	공무원	강성근	주무관
5	의원	박경자		12	공무원	전인우	주무관
6	의원	조대영					
7	의원	최익순					

3. 연수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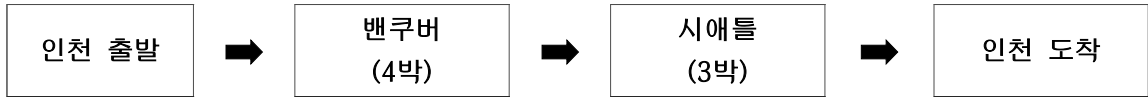
-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2년이 채 남지않은 상황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운영과 사후활용을 견학 후 강릉의 시설에 적용하고,
- 인구노령화에 대비하여 선진 노인복지시설을 견학하여 실버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4. 연수의 세부내용

- 밴쿠버 올림픽시설 시찰
 - Rogers Arena
 - Pacific Coliseum
 - Whisler Olympic Park
 - Cypress Mountain
- 노인복지시설 시찰
 - 밴쿠버 요양시설(Amenida)
 - 밴쿠버 시니어타운
 - 시애틀 노인공동생활 거주시설(Merrill Gardens)
-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 모색
 - 개스타운
 - 부차드 가든
- 도시기반시설
 - 밴쿠버 쓰레기 소각장
 - 밴쿠버 전통시장
 - 시애틀 전통시장
 - BC주 의사당

5. 주요일정

○ 연수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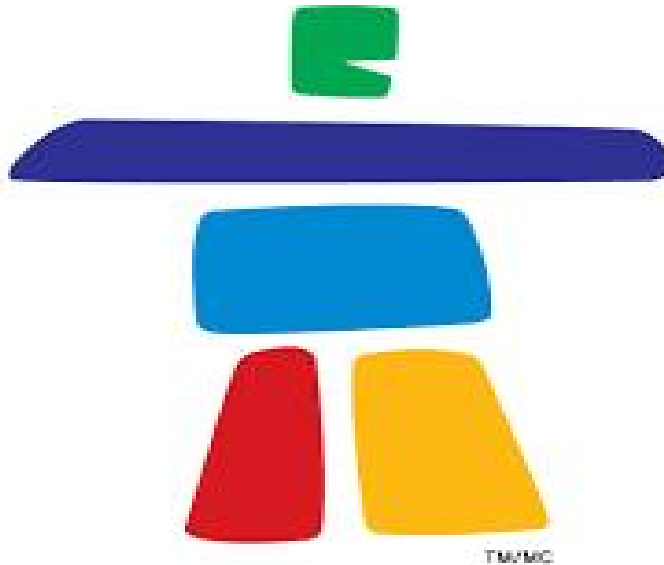


○ 시찰 일정

월/일	지역	교통편	시간	상세일정	기 타
4.24 (일)	강릉 인천 밴쿠버	전용차량	09:30 16:00 18:50 12:35	강릉집결지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인천국제공항 출발 밴쿠버 도착 (날짜선통과) ■ 관광자원 견학(개스타운) - 증기시계와 아름다운 거리로 관광자원 형성한 곳 ■ 재래시장 방문 - 어촌과 시멘트 공장을 개조한 재래시장 ■ 그랜빌 아일랜드 - 공예가와 예술가의 갤러리	
4.25 (월)	밴쿠버	전용차량	전 일	■ 올림픽 경기장 활용시설 방문(whisler olympic park) ■ 올림픽 주변 숙박시설 견학(whisler village)	
4.26 (화)	밴쿠버	전용차량	전 일	■ AMENIDA - 광역 밴쿠버 요양 시설 견학 ■ 올림픽 경기장 시설 견학(pacific coliseum) - 각종 콘서트장, 행사개최지로 활용 ■ 올림픽 경기장 시설견학(rovers arena)	
4.27 (수)	밴쿠버	전용차량	전 일	■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부차드 가든) - 꽃과 나무를 주제별로 만든 정원 ■ BC주 의사당 ■ 시니어타운 방문(newwest minster)	
4.28 (목)	시애틀	전용차량	전 일	■ 밴쿠버 쓰레기 매립지 현장견학 ■ 올림픽 경기시설 견학(Cypress mountain) ▷ 시애틀 이동(국경통과)	
4.29 (금)	시애틀	전용차량	전 일	■ MERILL GARDENS - 노인 공동생활 거주시설 ■ 도시기반시설 견학(하이렘 운하) - 호수의 민물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형성된 운하	
4.30 (토)	시애틀	전용차량	전 일	■ 도시기반시설 실태 비교 (전통시장, 광장, 전망대)	
5.1 (일)	시애틀		13:55	시애틀 출발 - 날짜선통과	
5.2 (월)	인천		17:35 18:30 22:30	인천도착 인천출발 강릉도착	

1] 밴쿠버올림픽 개요

- 2010 밴쿠버 올림픽은 1976년 몬트리올 하계올림픽과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과 더불어 캐나다가 개최한 세번째 올림픽 이벤트이다.
- 개최지인 밴쿠버의 명칭을 따서 밴쿠버동계올림픽이라 통칭하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밴쿠버는 2003년 7월 2일 체코의 프라하에서 열린 제115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한국의 강원도 평창,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와 경쟁 끝에 제21회 동계 올림픽경기대회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vancouver 2010

▲ 밴쿠버 올림픽의 로고인 일라낙은 친구를 의미한다

- 밴쿠버동계올림픽은 2010년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 동안 개최되었으며 밴쿠버 시뿐만 아니라 주변의 리치몬드시,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 휘슬러 등에서 17일간 82개국 5,500여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밴쿠버동계올림픽에 투입된 비용은 약 56억 8,000만C\$이며,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7억 6,100만C\$는 경기운영과 시설건설에, 9억 2,200만C\$는 올림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10억C\$는 기간 내의 선수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9억C\$는 밴쿠버 컨벤션 건설을 위하여, 23억C\$는 교통 기반 시설 건설로 사용 되었다.

- 밴쿠버올림픽에서는 리치몬드 오벌, 휘슬러 올림픽/패럴림픽 파크, 휘슬러 슬라이딩 센터, UBC 썬더버드 아레나 총 5곳의 경기장이 새로 건설되었고 사이프레스마운틴, 퍼시픽 콜로세움, 휘슬러크리크사이드, BC 플레이스 총 5곳의 경기장은 개·보수되어 사용되었다. 그밖에 밴쿠버와 휘슬러에 올림픽/패럴림픽 선수촌이 신설되었고 대회 기간 동안 훈련 장소로 사용된 휘슬러 애슬릿 센터와 2개의 커뮤니티 센터 등 모두 5개의 새로운 비경기장소가 건설되었다.



밴쿠버 올림픽 마스코트(미가, 콰치, 수미)

2] 밴쿠버 올림픽 시설

1) Rogers Arena

① 현황

- 로저스 아레나(Rogers Arena)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밴쿠버에 있는 실내 경기장으로 1995년 건설되었다. 현재 NHL 밴쿠버 캐닉스의 홈경기장으로 쓰이고 있으며, 과거 NBA 밴쿠버 그리즐러스의 홈경기장으로 사용했다.
- 2010년 동계 올림픽에서는 아이스하키 경기장으로 쓰였으며, 그 때는 캐나다 하키 플레이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18,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Rogers Arena 시설개요

위치	· 800 Griffiths Way, Vancouver, BC
종목	· 아이스하키
시설	· 완공 : 1995년 9월 · 높이 : 39M(5층) · 사용 : 아이스하키 경기장, 콘서트 및 스포츠 경기장
수용인원	· 18,630석
투입비용	· 620만 C\$

② 시찰

-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린 로저스 아레나는 기존 경기장을 개보수하여 사용한 경기장이다. 1995년 완공된 이경기장은 NLH(National hockey league)팀인 밴쿠버 캐닉스의 홈구장으로 밴쿠버 선수촌에서 2km 거리에 있고 17,000개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다. 올림픽을 대비해 대회 준비기간중 보수하였으며 개·보수하는 비용은 620만

- CS가 소요되었고 자금의 일부는 민간투자를 통하여 조달 하였다
- 올림픽이 개최된 시설이라고 하면 뛰어난 주변 도로와 주변 주차장을 먼저 생각하는데 이곳 로저스 아레나는 도심 한가운데 경기장이 있어서인지 주변 도로도 좁으며 배후 주차장도 거의 없었다. 올림픽 개최당시에는 경기장 주변의 차량을 전면통제하고 도심 외곽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시민과 관광객의 협조아래 잘 이루어졌다고 한다.
 - 캐나다에서는 하키가 최고의 인기 스포츠이다. 로저스 아레나는 기본적으로 하키경기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키 비시즌 중에는 유명 셀러브레이터들의 공연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UFC와 같은 다른 종목 이벤트 경기를 꾸준히 유치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한다.



로저스 아레나 실내전경

- 바닥은 콘크리트에 방수처리된 상태로 하키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 및 스포츠 경기를 위해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19,000석의 대규모 실내 경기장으로 전면 전광판 외에도 경기장 중앙 천정에 대규모 사각 전광판을 설치하여 경기를 관람하는 이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는 하키 및 다른 공연에도 훌륭히 활용된다고 한다.



술과 음료를 하면서 경기를 즐길수 있는 5층공간

- 관중석은 전체 5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눈여겨 볼 사항은 최고층인 5층은 패밀리룸, 파티장과 맥주바를 설치해 이용객의 편의와 함께 수익사업을 도모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경기장 내에서 맥주를 팔 수 없었으나 관련 규제를 풀어 현재의 모습을 갖출수 있었으며 일부에서 우려하였던 음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 시설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경기장 내에는 상점을 운영하고 경기장 둘러볼수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어 관광객을 이끌고 있었다.



로저스아레나에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기원하며..

2) Pacific Coliseum

① 현황

- 퍼시픽 콜리세움(Pacific Coliseum)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에 있는 실내 경기장으로 1968년 건설되었다. WHL 아이스하키 리그 경기장으로 쓰이고 있으며, 2010년 동계 올림픽에서는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팅 경기장으로 쓰였다. 17,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김연아 선수가 2010년 밴쿠버올림픽 당시 금메달을 딴 장소이기도 하다.

Pacific Coliseum 시설개요

위치	· 100 North Renfrew Street,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V5K 3N
종목	·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시설	· 면적 : 경기장 바닥 5,279m ² , 상단 3,484m ² · 시설보수 - 국제적 규모의 넓은 중앙 경기장 □ - 냉동시설 및 세면장 시설, 난방, 환기, 냉방, 조명 및 제습시설 등 개선 · 사용 : 아이스하키 경기장, 콘서트 및 스포츠 경기장
수용인원	· 17,700석
투입비용	· 3,930만C\$

② 시찰

-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팅 경기는 1967년 지어진 헤이스팅 파크안의 Pacific Coliseum을 개·보수하여 개최하였다. 이 시설은 2018 밴쿠버동계올림픽 선수촌과 8km 떨어진 위치에 있다.
- 15,0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던 기존 경기장은 , 개·보수비용에 1,550만C\$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종목 전용 빙상경기장

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에 도달했다. 결과적으로 냉동시설 및 세면장시설, 난방, 환기, 냉방, 조명 및 제습시설 등의 개선비용 2,040만 C\$ 를 포함하여 Pacific Coliseum의 전체 개·보수비용은 당초 예상했던 금액의 2배가 넘는 3,930만C\$가 소요되었다.



공연무대장치 준비중인 Pacific Coliseum

- 개·보수비용은 브리티시콜롬비아 주정부와 캐나다 정부가 공동조달 하였다. 기존에 있었던 좌석을 16,000개로 재배치하고, 빙판의 넓이를 국제규격에 맞게 변경했다.



Pacific Coliseum시설관리팀장과 동계특위 위원

- 퍼시픽 콜리세움 역시 경기장에 필수라고 생각되는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였다.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딸 당시의 경기를 보기위해 관중들은 외곽에 차를 세워놓고 30분 이상을 걸어와서 경기를 관람했다고 한다.
- 퍼시픽 콜리세움은 현재 주로 하키 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하키는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있는 빙상종목중 하나로 1부리그와 2부리그가 운영되고 있다.
- 1968년 신축되어 밴쿠버 올림픽 당시 전면적인 보수를 진행하였는데 오래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며 시설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시설노후화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한다.
- 방문당시 경기장은 다른 공연을 위해 무대장치를 준비하는 중이었으며 하키시즌을 제외하고는 농구와 권투를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 경기와 각종 콘서트를 개최하여 시설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한다.
- 경기장 가운데 천장에 대형 사각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스포츠경기과 각종 공연시 훌륭히 활용 있다고 한다.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딴 Pacific Coliseum

3) Whisler Olympic Park

① 현황

- 휘슬러 올림픽 공원은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서부의 휘슬러에 있고 밴쿠버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이며, 2010년 동계 올림픽에서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노르딕 복합, 스키 점프 종목이 열린 곳이다.

Whistler Olympic Park 시설개요

위치	· Callaghan Valley Madeley Creek Basin in the Callaghan Valley
종목	·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노르딕 복합, 스키점프
시설	· 서로 400m 떨어진 3개의 경기장을 가지고 있음 · 환경적 고려: 벌목지를 활용, 벌채된 목재 재이용 · 연중훈련 가능 · 두 개의 스키점프 경기장(노멀힐, 라지힐)는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냉각 시스템과 트랙 세팅 시스템 · 국가적/지역적 훈련 센터로의 사용이 주요 원칙
환경	· 고도: 930m에서 840m
수용인원	· 고정 수용인원: 8,000명 · 임시 수용인원: 3개 시설 12,000명
투입비용	· 1억 9,000만CS

② 시찰 및 시사점

- Whistler Olympic Park지구 내에 있는 3개의 경기장에서 노르딕 복합경기,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 경기가 개최 되었다. 50km의 크로스컨트리스키 코스를 포함한 Whistler Olympic Park는 공공 휴양시설로 개방되어 있다.

- 조직위는 휘슬러에 스키점프와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등 노르딕 경기를 위한 ‘휘슬러 올림픽파크(Whistler Olympic Park)’와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 등 슬라이딩 경기용 ‘휘슬러 슬라이딩 센터(Whistler Sliding Centre)’를 새로 지었다. 이들 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곳은 ‘휘슬러 스포츠 레거시(Whistler Sport Legacy)’라는 비영리 조직이다. 동계올림픽 강국인 캐나다에서도 비인기 종목으로 사후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휘슬러 스포츠 레거시(Whistler Sports Legacies)는 올림픽공원, 슬라이딩 센터 및 선수회관의 관리를 맡고, 스포츠 레거시의 목적을 국제 경기를 유치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동계 스포츠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두고 여러 대회를 유치하고 있었다.



Mary ann 시설운영팀장으로부터 올림픽파크 시설과 운영현황을 설명을 듣고 있다

- 밴쿠버는 경기장 건설시 세계 수준의 스포츠 경기장으로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더불어 연중 야외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였다.
- 밴쿠버 역시 강릉과 마찬가지로 도로와 전철 등 각종 인프라 건설에 힘을 쏟았다. 대표적인 예가 밴쿠버와 휘슬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Sea To Sky Highway)다. 조직위는 올림픽을 앞두고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8억여C\$를 투입하여 확장하였다.

- 다른 동계 올림픽 개최지들은 스키 점프와 크로스컨츄리 코스가 너무 멀어 관중들이 불편했다면 이곳은 가까이 있는게 큰 장점이다.
- 밴쿠버 올림픽을 통해 한층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곳은 4월말인 현재에도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이 스키를 타기위해 방문하고 있었으며 5월 초까지 스키장을 개장하고 있었다. 비시즌에는 스키를 탈수 없기에 슬로프는 산악자전거 코스로 이용되고 있었다.



휘슬러 올림픽파크와 휘슬러 빌리지

- 휘슬러가 전세계 스키/스노보더들에게 사랑받는 큰 이유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스키장과 멋진 풍경에서 즐기는 스키 체험이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스키장을 올라가는 곤돌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휘슬러 빌리지이다.
- 휘슬러 빌리지는 올림픽 당시 배후 숙박시설로 건설되었으며 현재 호텔과, 콘도 쇼핑거리로 조성되었다.
- 휘슬러 빌리지는 BC 주정부와 올림픽조직위원회, 휘슬러 시위원회가 예산 규모나 시설계획 등 모든 과정을 함께 협의해 진행했다. 처음부터 지역 주민에게 분양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였고 분양 가격도 상한선을 뒤편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그 때문에 지역 주민이 대부분 분양받았다. 다만, 일부는 여름이나 겨울에 훈련하러 온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영한다

- 휘슬러 빌리지에는 호텔, 레스토랑, 쇼핑몰, 슈퍼마켓, 병원 등의 모든 편의시설들이 모여있어 도보로 모두 이용 가능하다. 컬러풀한 원목으로 세워진 휘슬러 빌리지의 빌딩들은 마치 알프스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휘슬러빌리지

- 휘슬러 빌리지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가 되어 오가는 이도 많고 상가에 쇼핑거리도 넘친다. 이곳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며 자전거를 포함하여 탈것은 절대 불가라고 한다.
- 빌리지 내에는 북미 지역의 유명 브랜드, 스포츠 웨어, 스키/보드 렌탈 샵, 액세서리, 선물가게등 200여 개가 넘는 쇼핑 샵들이 들어서 있다. 또한 90여 개가 넘는 레스토랑에서는 태국, 일본, 프랑스 등 세계 각 지역의 요리를 선보이는 레스토랑과 바들이 있어 스키나 스노보드를 즐긴 후 여흥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많다.
- 휘슬러빌리지 입구에는 관광안내를 위해 이동식으로 지어진 안내소가 있으며 안내는 지역의 노인이 담당하고 있었다. 노인 본인이 일을 원할경우 이를 지원해 주는 캐나다의 복지 정책의 하나이다.



노인이 안내원으로 활동중인 이동식 관광안내데스크

- 휘슬러시는 올림픽위원회와 함께 1억 1천불의 재원을 투입하여 선수촌을 건설하였으며, 현재는 지역주민의 생활터전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선수촌개발의 계획과 부지 선정시부터 주민 주도형 개발 형식을 채택하여 지역 특색에 맞게 개발되었다.



휘슬러빌리지에서 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화이팅!

- 선수촌은 두호에서 세호까지 개인주택이 붙어있는 구조(Duplex와 Triplex), 2~3층규모의 타운하우스, 주상 복합아파트 등으로 총 235채가 건설되었다. 분양형식은 85%의 물량을 지역주민에게 우선 분양하였으며 15%의 물량은 일반분양을 실시하였다. 지역 주민에게는 일반 시세에 비해 20~30% 저렴하게 분양되었으며 시세와의 차익은 시가 부담하였다.



휘슬러 빌리지 입구에 있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엠블럼 일라나크
여러형태의 기념품으로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다

4) Cypress Mountain

① 현황

- 사이프러스 마운틴은 캐나다 서부 BC주, 사이프러스 주립공원 내에 있다. 세계 3대 스키장인 휘슬러 스키장과 함께 뛰어난 설질로 유명한 스키장이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당시 프리스타일 스키와 스노보드 종목의 경기가 개최되었다. 47개 규모의 알파인 스키코스 와 19km에 달하는 크로스컨트리 코스가 특징이다.

② 시찰

- 스키의 도시인 밴쿠버는 시내에서 30분이면 눈덮인 슬로프에 도착할 수 있는데 브리티시컬럼비아 도심이 내려다보이는 사이프러스 마운틴은 그 중심에 있다.



사이프러스 스키장 입구에 위치한 올림픽 엠블럼

- 시간당 5,560명을 나를수 있는 6개의 리프트에 연결된 38개의 슬로프가 있으며 가장 긴 슬로프는 4KM에 달한다.
- 밴쿠버의 3개 로컬 스키장 중 최고로 꼽히며 사이프러스 주립공원을 굽이굽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중간에 전망소가 있는데면 탁 트인 아름다운 밴쿠버의 전경을 감상할 수가 있다.
- 최대 높이가 1440M에 달하고 연간 적설량이 10M가 넘는 지역이지만 실제 밴쿠버 동계올림픽 준비 기간중에는 눈이 오지 않아 헬기와 트럭으로 다른 곳의 눈을 옮겨와 경기장을 마련하였다.

5) 밴쿠버 올림픽 시사점

- 밴쿠버 올림픽 시설은 시설 준비단계에서 맨 먼저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시설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존 시설을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 하였다.
- 빙상 경기장은 하키와 같은 동계스포츠 리그를 통해 사용하고 공연 등 이벤트와 다른 스포츠 경기를 유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상되었으며 설상 경기장은 동계시즌 중에는 스키장으로 이용되고 비시즌에는 산악자전거, 하이킹과 같은 다른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로 구상되었다.
-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화려함 보다는 내실있는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즌과 비시즌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 밴쿠버 시민들은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올림픽 폐막 후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밴쿠버 시민의 81%는 올림픽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 하지만 캐나다는 올림픽을 위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대회가 끝난 후 심각한 빚잔치를 치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실패한 올림픽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 밴쿠버 올림픽에 투입된 비용은 약 C\$ 56억 8천만 C\$로 이는 밴쿠버 올림픽 위원회가 개최를 확정지은 후 예상했던 총 예산 20억 불의 세 배에 달하는 비용이다. 게다가 올림픽 빌리지 개발업체에 재정보증을 썼다가 떠안은 빚도 5억 C\$이다.
- 결국 이러한 ‘빚’은 결국 밴쿠버 시민들이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몫으로 남겨졌다.
- 일반적으로 국제대회의 경우 대회 유치를 준비하면서 각종 예상 경제지표들을 내 놓는다.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얼마,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 등 광범위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장미빛’ 전망을

쏟아낸다.

- 하지만 실제로 국제대회 유치에 그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유발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최근에는 오히려 동계올림픽대회 이후 유발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고 있다.
- 올림픽 대회기간은 일정이 길지 않다. 대회기간은 16일 이지만 경기 이후 남은 시설물은 꾸준한 관리비용을 요구한다. 경기장과 시설물들은 관광자원으로서의 효용도 떨어진다. 체육관련 시설물의 경우 관광객을 유치할 만큼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결국 남은 것은 시설물 관리비 지출뿐이다.
-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완벽한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좋겠으나 짧은 기간의 이벤트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이후 커다란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퍼시픽콜리세움이나 로저스아레나의 경우를 보더라도 주변 대규모 주차장이나 도로망이 없더라도 경기를 잘 이루어 냈듯이 준비기간 중 한단계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도 방법일 듯 하다.
- 국제대회 개최가 적어도 단기적으로 지역과 국가에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점이 있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반짝’ 수준에서 그친다면 지자체와 지역 주민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캐나다 복지제도

1) 의료비

- 캐나다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있는 나라이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이념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의료보험 제도를 들 수 있다. 캐나다의 의료보험 제도는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데 먼저 의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둘째로 모든 의료비가 전액 무료이다.
-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의료서비스인데 이점에서 캐나다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한 곳으로 칭하게 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직장 의료 보험이나 지역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보험 혜택을 받더라도 보험비 일부를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하여야 하지만 캐나다는 영주권자가 됨으로써 의료비 혜택 대상자가 되며 모든 병원비 즉,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등이 모두 무료이다.
- 기본적으로 질병관련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국가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 백만장자나 홈리스나 동일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이다.

2) 노인복지

- 캐나다의 노인복지는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의 장점을 조화시킨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노인의 소득보장에 관한 사항은 연방정부가 관장하고 있지만, 노인의 건강, 복지, 오락, 교육, 주택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혜택은 개인의 재산이나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다.
- 우리나라도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면서 인구가 노령화 되면서 노인문제

가 심각해 지지 않을 수 가 없는데, 노후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세대가 노년층으로 도래하니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 캐나다에서는 노인문제를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었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누구나 기본 노령 연금이라는 것을 받고 있으며 또 65세 이전에 경제 활동을 한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CPP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만일 질병이나 사고로 몸이 불편하게 되면 각종 지원금도 받게 된다. 그래서 65세 이상 부부들은 최소 월 \$1,800에서 많게는 약 \$3,500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집이 없는 분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의 노인 아파트를 제공하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 결국 개인이 노후대비를 위해 재테크를 하지 않아도 또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자녀가 없어도 캐나다에서는 노년을 보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생활고를 비판하여 자살을 하는 등의 노인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4 노인복지시설

1) 밴쿠버 요양시설(Amenida)

① 현황

- 아메니다는 거동불편을 포함하여 혼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200여명이 입실할수 있는 규모로 총 3층의 구조로 되어있다. 여러 문화권의 주민이 혼재되어 있어 문화권별로 동을 구성하여 문화에 맞는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② 시찰

- 아메니다는 독립생활, 도움이 필요한 보조생활이 필요한 분 뿐만 아니라 임시간호가 필요한 분과 독립된 생활이 필요한 노인층을 위한 시설이다. 24시간 직원이 상주하여 항상 응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 각 문화권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다.
- 이곳에는 한국인 전용동이 있었는데 이곳 밴쿠버에도 많은 한인이 있으며 한국문화와 한식을 식사로 대접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었다.
- 캐나다에는 연금제도가 발달하여 노후에 상당한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부양하는 가족이 없더라도 연금수령액만 가지고도 이런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다고 한다.



캐나다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
수석 매니저 Teena Love, 한인 담당 매니저 Rosa Park

- 캐나다에는 전국적으로 6,500여개의 노인입소시설이 있는데 그 중 55%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나머지 45% 내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 어르신들의 거주공간은 1인 1실로 유지되어 있고 어르신의 안전과 편안을 위해 여러시설이 준비되어 있으며 화장실을 비롯한 객실 내부 곳곳에는 비상 응급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몸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할시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아메니다 시설 견학

- 또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건강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어르신들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건강 증진에 필요한 다양하고 활동적인 여가 프로그램과 목욕,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시설에서 한인어르신에게 제공되는 음식을 같이 먹어보면서 노인복지제도에 대해 간담중

2) 밴쿠버 시니어타운(newwest minster)

① 현황

- 밴쿠버 지역은 시니어 들을 위한 하우징이 정부 차원하에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위치 선정과 렌트비 혜택 등 노년의 삶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밴쿠버 전 지역에 방대하게 시니어 주거 빌딩들이 있지만 newwest minster는 그 중 대표적인 시니어 주거지역이다.

② 시찰

- 캐나다는 노인문제를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노인문제의 가장 큰 부분은 주거, 의료 문제인데 집이 없는 분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의 노인 아파트를 제공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거주하는 분들에게 주1회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 활동을 하고 있었다.
- 이러한 캐나다의 홈 헬프 서비스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중 하나인데 아파도 주위에 아는 사람이 없거나 이동이 불편하여 병원에 갈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용어 그대로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홈 헬프에 대한 수요가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많은 노인들이 더 이상 장기 치료나 요양이 아닌, 자택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길 희망하기 때문일 것이다. 투석이나, 만성 장애 치료, 그리고 수술 후 회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한다.
- 노인 주거공간은 작게나마 베란다를 두어 베란다에서 주위 경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식도 활용하고 있었다.



작은 베란다와 휴게공간이 있는 노인주택



정부에서 지원하여 제공하는 시니어 타운 전경



저렴한 비용을 위해 출입구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 무엇보다 뛰어난 경치가 어우러진 장소에 타운을 설치하였고 타운 앞쪽으로 강을 끼고 있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노인들이 무료함을 달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3) 미국 노인복지제도

- 미국에서는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그 어느 것도 최저한에 가까운 보장이고 기본적으로는 자조노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미국은 개인주의, 자유방임주의, 지방분권주의 경향이 농후한 국가로 국가는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떠나감에 있어서도 지방분권주의, 자유방임주의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 나라의 노인복지행정체계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단위 행정기구 및 민간단체로 이어지는 서비스망에 의해서 이뤄진다.
- 연방법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노령연금과 같이 포괄적 연금법, 사회보험관련법, 재정 지원법 등을 주로 포함하고 있으며 주법은 주 정부와 주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정한 부법에 따라 병원, 노인복지시설, 학교 등이 운영되고 있다.
- 미국의 공적연금제도는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연방 노령, 유족, 장애보험제도, 연방공무원 퇴직제도, 주 및 지방공무원 퇴직제도, 퇴역군인제도 등으로 직종별로 분리 운영되며, 연방사회보장연금제도는 단층제도로써 소득이 있는 피용자와 자영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소득부조로 별도 구제를 받는다.
- 미국의 주거보장정책은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 그들에게 적합한 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크게 주택서비스와 요양시설 서비스가 있다.
- 미국 노인의 2/3는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집은 자녀를 양육할 때부터 살던 집들로 노인부부만 살아가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넓어서 많은 관리비와 세금을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해 빈곤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돈이 없는 상황에 놓인 노인들을 지원하고 자신이 오랫동안 살던 지역에서 사는 것이 노인의 정서적으로도 좋다는 점을 고려해 주택 자산 활용 프로그램(Home Equity Conversion Program)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4) 시애틀 노인공동생활 거주시설(Merrill Gardens)

① 현황

- Merrill Gardens은 노인 공동 생활을 위한 거주지를 개발 및 운영하는 회사로 미국 6개 주에 다수의 시니어 타운을 소유, 운영하고 있으며 높은 생활의 질, 보안 그리고 개인생활 보호를 기반으로 시니어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있다. 워싱턴 주에만 본사에서 소유한 13개의 시니어 타운이 있다.

② 시찰

- 우리가 방문한 Merrill Gardens은 은퇴후의 프리미엄 시니어 타운으로 총 123개의 방으로 되어 있으며 각 방마다 차이는 있지만 다소 많다고 생각되는 월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의 월 사용료를 받고 있었다.
- 60㎡대의 독립적인 거주공간과 생활보조, 간호보조를 제공하며 식사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상시 제공하고 있었다.
- 주거공간 내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원이 있으며 오락프로그램을 통해 입주자에게 즐거운 주거생활이 될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입주자의 방에서 바라본 Merrill Gardens

- 시애틀의 쾌적한 환경을 기반으로 한 이 곳 시니어 타운은 엄청난 월 사용료가 있었지만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자가 있기에 100%에 가까운 입주율을 보이고 있었다. Merrill Gardens은 워싱턴 주에만 13개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이 수려한 미국 6개 주에 70여개의 시설을 운영하여 실버산업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내 상황은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국내에도 노인요양시설과 노인 주거시설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주거시설은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다.



총괄매니저 Lisa Palm으로부터 시설설명을 듣고 있다

5) 노인복지시설 시사점

- 캐나다의 국가가 주도하는 노인복지정책과 미국의 노인복지정책은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나, 의료보장측면에서 전체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보장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 점은 동일해 보이는 반면 국가가 주도하는 캐나다와 개인중심의 미국의 차이는 어느정도 뚜렷해 보인다.
-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근 100년에 걸쳐 노령화가 진행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불과 20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급속한 노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 주거보장 측면에서는 노인의 건강과 경제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다양한 공공주택이나 노인주택 등을 충분히 개발하여야 하고 정부는 주택관리비용에 대한 지원대책과 노인을 위한 주택내 설비, 생활 지원서비스, 의료서비스와 연계된 시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이 필요로 할 것이다.
- 공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 다층적인 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능력과 기대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 취업인구를 늘리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일차적 노인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무의탁 노인들의 생활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확충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그 바탕 위에 미국의 경우와 같이 민간부분이 참여하여 부가적 서비스를 원하는 경제력 있는 노인층의 주거욕구 충족을 위해 시장원리에 입각한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춘 시설을 공급한다면 노인복지와 더불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

1) 개스타운

① 현황

- 워터가와 캠비가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는 개스타운은 밴쿠버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다. 19세기의 유럽 분위기가 물씬 풍기며 이곳에는 개스타운의 상징인 증기시계뿐만 아니라 노천 카페, 많은 기념품 점이 위치되어 있다.
- 한때 대화재로 거리의 모든 건물이 소실되고 경제공황으로 빈민가로 전락하였던 개스타운은 1971년, 대대적인 재정비를 하여 곱스럽고 화사한 분위기로 탈바꿈하였다. 지금은 서울의 인사동처럼 밴쿠버를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거리가 되었다.

② 시찰

- 밴쿠버의 개스타운은 1867년에 건설된 밴쿠버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다. 당시 영국 상선의 선원이었던 존 데이튼 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곳에 정착하였는데 그의 별명인 개시 잭이 알려지면서 개스타운으로 불리게 되었다. 고전적인 향취가 물씬 풍겨나는 건물과 도심의 화려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있는 곳이다.



개스타운 전경

- 개성 있는 장식과 유럽풍 분위기가 가득했고, 독특한 레스토랑과 노천 카페 들이 골목마다 늘어서 있으며, 쇼핑을 위한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즐비하여 고풍스러움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 개스타운은 서울의 인사동처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거리가 되었다. 이곳에는 또 다른 볼거리 개스타운의 상징인 증기시계가 있다. 이 시계는 30분 간격으로 증기 소리를 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시간에 맞춰 사진을 찍는다.
- 고풍스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전통적인 건물과 함께 아기자기한 상점들과 식당이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시작을 통한 스토리가 이곳을 더욱 유명하게 하고 있다.



개스타운의 명소인 증기시계

2) 부차드 가든

① 현황

- 100년 역사의 부차드 가든은 1904년 로버트 핼 부차드(Robert Pim Butchart) 부부가 채굴이 끝난 황폐한 채석장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미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 초기의 정원은 1904년에 제니 부차트가 남편의 시멘트 사업으로 채굴되었던 옛 석회암 채석장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시작되었다.
- 이미 백 년이 넘도록 부차트 일가는 원예와 정성어린 환대에 몰두하며 매년 백 만명 가까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4년에 부차트 가든은 캐나다 국가 역사 유적지로 지정되었다. 정원의 면적은 22만 평방미터에 달한다.

② 시찰

- 약22만 평방미터의 정원은 크게 다섯 곳으로 나누어져 있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잔디밭과 산책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 테마공간으로는 선큰가든, 장미정원, 달팽이 연못, 베고니아 전시원, 일본정원, 이태리식 광장과 정원 등이 있다. 잔디광장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벌어진다. 주말 밤에는 불꽃놀이가,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 개설하여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한다.



부차드 가든

- 이곳의 가장 중심은 썬큰가든이다. 썬큰가든이란 말그대로 석회석을 채굴하느라 생긴 움푹 파진 분지이다. 가운데에 있는 높은 돌기등에는 담쟁이들이 열심히 암벽을 타고 기어오르고 있으며 그곳에 올라 주변을 관람할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썬큰가든 내에는 20여 미터 높이로 물을 뿜어대는 분수가 있는데 이 분수는 1964년 개관 6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 밤이면 형형색색의 조명이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한다고 한다.



성큰가든

- 부차드 가든은 전 구간이 하나의 이동동선으로 구성되었으며 계단이 하나도 없었는데 주위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휠체어에 모시고 온 분들이 많이 보였다.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을 배려하여 관련 시설이 많긴 하지만 부족한데 이곳은 전 구간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해 놓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6 도시기반시설

1) 밴쿠버 소각장(Waste-to-energy facility)

① 현황

- 메트로 밴쿠버 소각장 시설은 1988에 건설되다. 본 시설은 메트로 밴쿠버에서 발생하는 25%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역의 쓰레기를 대량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16,000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전기를 생성하고 있다.
- 메트로 밴쿠버 당국은 당초에 매립의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하였으나 쓰레기를 묻기 보다는 태우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지지를 받았다.
- 특히 현재 위치한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열을 인근 건물들의 난방과 온수를 위한 에너지로 활용함으로써 연간 6백만 달러의 추가수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소각방식은 여러 모로 선호되고 있다.

② 시찰

- 메트로 밴쿠버의 주민은 세계적으로도 재활용을 잘 실천하는 주민들이지만 현재 61%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곳의 재활용 목표는 쓰레기의 80%를 재활용하는 것이며 80% 재활용을 달성하더라도 매년 70만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게 된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를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매립의 방법은 가장 안좋은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세계적으로 수백개의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설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인체에 안전하고 환경도 파괴시키지 않는다는 인식을 시민이 같이하고 있다고 한다.
- 쓰레기 소각은 매우 높은 온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해 독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오염저감장치를 포함 엄격한 정부의 규정을 따르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David Marrow 수석 엔지니어로부터 시설 설명을 받는중

- 열분해 가스화 시스템은 폐기물을 합성 가스, 수증기로 변환시킨다. 생성된 합성 가스 또는 증기 스트림은 직접 가열을 위해 연소되거나 또는 가스 터빈 엔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데 합성 가스는 디젤, 녹색 화학, 메탄올, 에탄올과 같은 연료 첨가제를 포함하는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쓰레기는 가스화 또는 열분해 반응기에 삽입하기 전에 사전 처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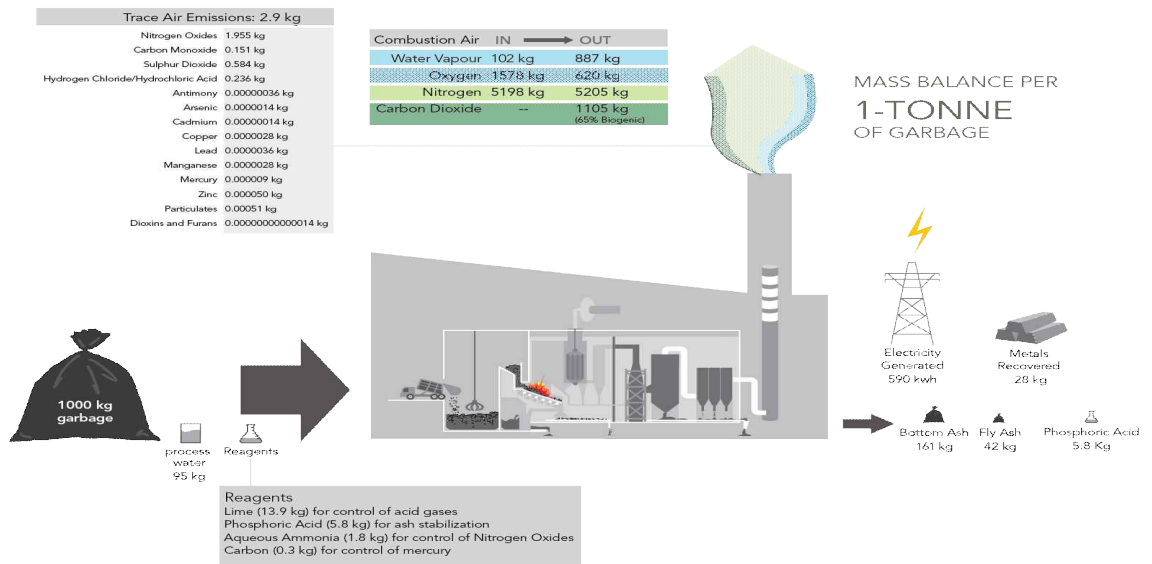


소각장 시설 내부 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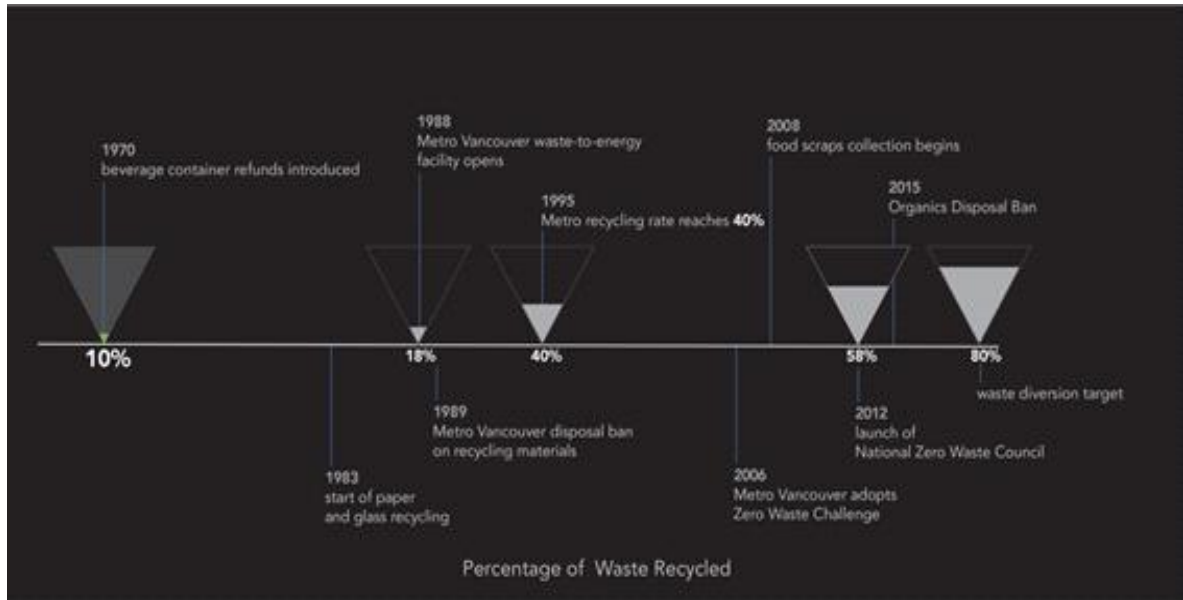
소각장 내부 시찰
내부는 소음과 진동으로 견디기 힘들 정도다.

EXISTING METRO VANCOUVER WASTE-TO-ENERGY FAC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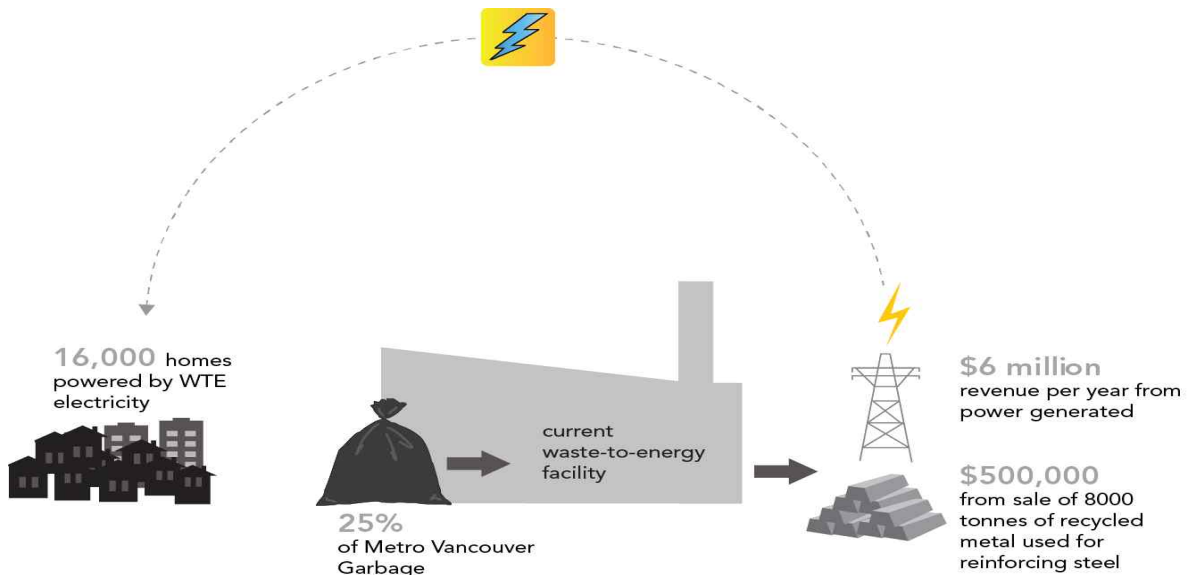
The mass balance is based on the most current 2012 operational information which is a blend of data from different sources and, as a result, the mass balance does not close perfectly. Sanitary waste flows have been excluded.
Data prepared by CDM Smith for Metro Vancouver. Prepared on January 14, 2014. Responsible engineer: R.L. Hurdle

쓰레기 소각시설



밴쿠버의 년도별 쓰레기 재활용 비율

- 메트로 밴쿠버의 61% 쓰레기 재활용률은 북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재활용 수준 중 하나다. 소각을 위해 선별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각장 설비가 생긴 1988년에 재활용 수준은 20 % 미만이었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쓰레기 소각후 발생한 재의 일부를 시멘트 공장에 재료로 판매하여 매립량은 최소로 하고 있었다.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 메트로 밴쿠버 소각장에서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16,000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전기를 생성하고, 매년 8,000 톤의 금속을 재활용하고 있다. 메트로 밴쿠버는 재활용품을 매각하여 50만불을 얻고 있으며 전기를 판매하여 매년 6백만불을 얻고 있었다.
- 이십오년 동안 시설을 가동하면서 규제 배출 기준보다 훨씬 더 잘 낮은 수준의 배출을 하였고 성능을 위해 인해 지속적인 운영 개선 및 배출물 제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고 한다.



쓰레기 소각후 바닥재 처리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 폐기물-에너지 공정으로 남은 재는 안전하게 매립되며 일부는 재활용되는데 매주 재를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 소각장은 주택가 주변에 있었으며 소각시설 바로 옆 공터에는 쇼핑몰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니 이곳에서 소각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듯 하다.
- 쓰레기 처리방식은 지역마다 다양하지만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어디에 가도 혐오시설로 취급받는다.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캐나다에 이런 쓰레기 소각시설이 있다는 사실에 다소 의아하기도

하지만 배출가스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소각하는 것이 매립하는 것보다 더 친환경적이라는 결론을 이곳에서는 내린 듯 하다. 강릉 쓰레기매립장의 사용연한이 이제 얼마남지 않았다. 새로운 매립장 건설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쓰레기 소각이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을 조금은 전환하여 이제는 소각장 설치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밴쿠버 전통시장(PUBLIC MARKET)

① 현황

- 밴쿠버 전통시장은 밴쿠버 중심에서 버스로 20여 분을 이동해야 하는 그랜빌아일랜드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는 화학공장과 창고가 있던 낡고 오래된 공장지대였지만, 1970년대 개조를 하여 북미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재개발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밴쿠버 현 지인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복합문화지역으로 재탄생했다. 주요판매 물품은 지역의 신선한 과일과 해산물, 간식거리 등 식료품과 지역의 아티스트들이 만든 물건이다.

② 시찰

- 밴쿠버 퍼블릭 마켓은 옛 공장 건물에 시장이 들어오고 주변에 다양한 예술가들이 이곳에 동지를 틀었으며 친환경 단지로 탈바꿈하였다. 지금은 유기농 식재료 및 전통시장에 관심이 많은 밴쿠버 시민들이 모여들어 현재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타운으로 거듭나고 있다.
- 처음 시장건물앞에 섰을 때 이곳이 전통시장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MARKET 이라는 간판이 이곳을 시장으로 알려주지만 건물은 영락없이 예전에 있었다는 공장건물이다. 공장굴뚝이 그대로 있으며 시장내부의 구조또한 공장건물 그대로인데 이곳에서는 특별히 시설을 보완하는 것보다 시장의 본연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 하다.
- 시장 내부는 활기가 넘쳤다. 생선, 과일, 간식거리 등 다양한 상품과 장신구와 독창적인 공예품을 팔고 있었는데 가끔 영화같은데

보면 과일이나 채소 혹은 생선 등을 갑판위에 올려놓고 파는 장면이 있는데 딱 그런 분위기이다. 여기저기 북적북적 흥정 소리로 생동감이 넘쳤으며 마켓을 돌며 갖가지 친환경푸드를 맛보는 체험도 가능했다.



화학공장을 개조한 밴쿠버 전통시장 외관

- 전통시장 외에도 전통시장 지구에는 마켓, 소규모 갤러리와 공방, 아트클럽극장, 맥주 양조장 등 즐길 거리,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다양하게 있었고 이색 수공예품이나 정원용품, 아트 상품 등 독특한 소품을 쇼핑할 수 있었다.



공장을 개조한 밴쿠버 전통시장 내부 모습



시장건물 바깥의 야외카페

- 마켓 주변에는 악사들이 있어서 골목 중간 중간에서 기타를 들고 라이브로 연주하는데 시장 분위기를 한 것 북돋아 준다.
- 이 곳 전통시장은 물건을 사러오기 보다는 여가를 즐기러 오는 곳이다. 가족과 함께 활기찬 분위기를 즐기고 아기자기한 물건들을 구경하며 필요한 물건을 산다. 시장과 주위에 위치한 아트클럽극장, 공방, 맥주 양조장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고객을 이끌고 있었다.

3) 시애틀 전통시장(PIKE PLACE MARKET)

① 현황

-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Pike Place Market)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시애틀 전통시장이다. 중개업자들에 의해 치솟은 양파값에 분개한 시민들이 직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1907년 당시의 시의원과 손을 잡고 이 시장을 만들게 되었는데 오늘날에도 직거래의 원칙은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의 기본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은 세계적인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며 관광지로서도 시애틀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다.

② 시찰

- 시장 입구에 들어서면서 느낀점은 시장이 활기가 넘친다는 것이다. 주로 생선, 꽃, 과일, 수제품 등을 판매하는 시장인데 상인과 고객 모두 활기가 넘쳐 보인다. 그리고 고객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상당히 넓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 미국같이 대형 도매상이 발달한 곳에서 이러한 소매장사가 발달하기 어려워 전통시장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그것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몰리게 하는 이유라고 한다.



시장 내부의 활기 넘치는 모습

- 시장 중간중간에 기타 하나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인디언 공예품과 신선한 생선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시장 가운데에는 생선을 파는 가게가 팔리는 생선을 멀리 던지고 받는 불거리를 제공하는데 이곳의 명소라고 한다.



시장 내부에는 가게마다 작은 이벤트로 볼거리를 제공한다

- 메인 아케이드 북동쪽에는 장인들의 노점상이 즐비하며 이곳에서는 인디언들의 소형 장식품에서 우아한 현지 공예품까지 차별화된 물건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 우리 전통시장은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손님을 뺏기고 상권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그런데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먼저 시작된 이곳에서는 전통시장이 오히려 호황인 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대형마트를 따라가려 하지 말고 전통시장만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경쟁력을 얻는 방안일 것이다.

4) BC주 의사당

① 현황

-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hsh Columbia) 주에서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곳은 빅토리아의 주 의사당이다. 빅토리아 다운타운 이너하버에 위치해 있는 BC주 의사당은 1897년에 지어진 것으로 8각형의 르네상스식 돔 지붕의 건물이며 돔의 꼭대기에는 태평양 연안의 항로를 처음 개척한 영국의 “조지벤쿠버” 선장의 조각상이 있고 광장에는 빅토리아 여왕과 6.25전쟁 참전기념상이 세워져 있다.

- 의사당 회의장은 12×18미터의 규모이며 회의장 양쪽에는 의원석이 서로 마주보며 배치되어 있다. BC주의 첫 의회때는 25명의 주 의원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85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입법부에서 일하고 있다.

② 시찰

- 주 의사당 앞에는 군인 동상이 있다. 캐나다는 6.25 한국전쟁때 참전국가이며 참전중에 죽은 이들을 기리기 위해 동상을 건립하였다. 주 의사당 안에도 참전국의 국기가 전시되어 있고 전사한 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BC주 의사당 전경

- 캐나다는 의원내각제이며 BC주의회는 8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선거때 BC주 최초로 한인 의원이 당선되기도 하였다.
- BC주에서 가장 큰 도시는 밴쿠버이지만 미국과 인접해 있는 빅토리아를 자국의 영토로 가져갈까 우려하여 상징적 의미로 빅토리아를 주의 수도로 두었다고 한다. 빅토리아는 섬이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이를 감수하고 이해한다고 한다.

- 100년이 지난 의사당 건물은 지역의 상징적인 건물 의미 외에도 훌륭한 관광자원이다. 실내 원형홀 바닥 중앙은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 모자이크 위에는 전통 카누가 놓여 있으며 이는 ‘강 건너기에 안전한 장소’ 라는 뜻으로 부족간의 다리를 표시한다.
- 입구에 들어서면 캐나다 여왕인 엘리자베스 여왕 2세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캐나다는 의회 민주주의이자 입헌 군주제 국가로 여왕은 캐나다의 국가수반이며 여왕을 대리하는 인물은 연방총독이다.
- 방문 당시 의회는 회기중이었으며 영상을 통해 회의중 열띤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난상토론을 펼치고 있었는데 다소 절제된 우리의 회의진행 방식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 한인 최초로 BC주 의원이 된 신재경의원은 강릉시 의회의 방문을 환영해 주었으며 필리핀 출신 의원과 의회 부의장을 소개시켜 주어 함께 간담을 나누었다.



간담후 BC주 의회 Raj Chouhan 부의장, 신재경의원,
재캐나다 대한테니스협회 회원과 함께

- 신재경 의원은 의회 내에서 무역, 소기업, 다문화정책을 담당하고 있었고 캐나다 내 한인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BC주 내에 지자체가 일본과 많은 자매도시를 맺고 있다고 하면서 BC주 내 지자체와 강릉시와의 자매결연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 신재경의원, 캐나다대한테니스협회 회원과 간담도중 강릉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빙상종목 개최지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실을 전부 모르고 있었다. 1년 남짓 남은 기간동안 꾸준한 홍보가 필요할 듯 하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화이팅!

7] 맺음말

-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빠른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근 100년에 걸쳐 노령화가 진행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불과 20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급속한 노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노인복지 정책은 나라마다 조세정책과 문화정책이 상이하어 어느 방향이 옳다고 단정 지을수는 없다. 캐나다의 노인복지 정책이 세계적이라고 하지만 이는 40%에 가까운 조세율과 풍부한 자원의 뒷받침 아래 이루어진 것일 수 있는 것이다. 짧은 시간에 복잡한 제도를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현지 제도에 대해 이해를 해 갈수록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캐나다의 복지제도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크게 노인복지에 필요한 것은 주거, 의료, 소득보장인데 우리의 경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 되어가는 것이 고무적이다. 향후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주거시설의 확충과 방문의료 확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주거보장 측면에서는 노인의 건강과 경제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다양한 공공주택이나 노인주택 등을 충분히 개발하여야 하고 주택관리비용에 대한 지원대책과 노인을 위한 주택내 설비, 생활지원서비스, 의료서비스와 연계된 시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이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와 같이 풍경이 아름다운 곳에 실버타운을 유치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일반적으로 국제대회의 경우 대회 유치를 준비하면서 각종 예상 경제지표들을 내 놓는다.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얼마,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 등 광범위한 경제적 이득에 대한 ‘장미빛’ 전망을 쏟아낸다. 하지만 실제로 국제대회 유치가 그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유발하는 지는 알 수가 없다. 최근에는 오히려 동계올림픽대회 이후 유발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고 있다. 올림픽 대회기간은 일정이 길지 않고 경기 이후 남은 시설물은 꾸준한

관리비용을 요구한다. 경기장과 시설물들은 관광자원으로서의 효용도 떨어지며 특히 빙상종목 경기장은 더욱 그러하다. 빙상경기장은 사후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만을 떠안게 되고 이는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 다행히 그동안 사후활용 방안이 없어 고민하던 강릉하키센터에 대해 지난 3월 (주)대명홀딩스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하키경기장을 유치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건설되고 있는 현대식 시설을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유치하여 향후 우려되고 있는 문제를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 밴쿠버 올림픽 시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 첫째, 운영주체 면에서 개최도시 당국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최도시는 재정적인 문제로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수익사업을 이루는데도 한계가 있다

- 둘째, 다양한 시설 활용이 가능하도록 최초 경기장 건설시 가변적인 요소를 최대화 하여야 한다. 전문경기장, 단순한 용도의 시설사용의 경우보다는 복합 다기능적인 시설 활용의 경우 사후활용의 정도가 훨씬 높아진다.

- 셋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동계스포츠를 위하여 건축한 공간이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수요의 한계가 존재한다. 스포츠공간으로의 활용이라는 시각을 넘어 오락, 체험,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설활용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가장 큰 올림픽 유산은 동계올림픽시설이 아니라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였다는 자긍심과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의식의 개선일 것이다. 시민의식이 한단계 개선된다면 이보다 큰 위대한 올림픽 유산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BC주 신재경의원이 강릉이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인 것을 몰랐던 것처럼 아직 강릉은 세계속에 나타나 있지 않다. 세계 여러나라를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 기울이고 앞으로

강릉이 동계올림픽 빙상종목 개최지임을 널리 알려 올림픽 개최 도시만이 누릴 수 있는 열매를 따야 할 것이다.

- 끝으로 내무복지위원회 모든 분들이 일정대로 시찰을 마치고 돌아와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연수단을 위해 성심껏 브리핑 해준 각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연수에서 얻게 된 소중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